

英語 時制의 指導方向

이를 教育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英語教育專攻

提出者 金 東 伯

指導教授 黃 彦 澤

1983年 月 日

金東伯의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主 審 김승택 

副 審 黃 亨 沃 

副 審 金 亨 宗 

1983年 月 日

目 次

I. 序 論	1
II. 現在時制의 指導方向	4
A. 現在의 習慣	5
B. 現在時의 事件 또는 事實	7
C. 現在의 狀態	9
D. 未來時를 나타내는 單純現在時制	14
E. 過去時를 나타내는 單純現在時制	16
III. 過去時制와 關聯된 問題點	18
IV. 未來時 諸 表現法의 意味差異와 그 指導方向	21
A. Will Shall + infinitive 와 關係된 未來時 表現上의 問題	22
B. Be going to + infinitive 意味의 檢討	25
C. 現在進行形의 意味의 檢討	28
V. 結 論	30
· 參 考 文 獻	33
· Summary	35

I. 序 論

人類의 諸 言語들은 共通的인 言語的 特性을 갖기도 하지만 제 나름대로의 獨特한 文法體系를 갖는다. 어떤 言語에서는 數를 表出함에 있어서 他 言語와 獨特한 差異를 보인든지, 文法的인 性을 表出함에 있어서 다른 方法으로 나타낸든지 하는 點등이 그것이다. 英語도 하나의 個別的인 言語로서 英語나름대로의 文法體系를 갖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文法體系는 英語를 母國어로 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言語的 習慣으로 因하여 內在化된 規則들이지만, 外國語로서 英語를 배우는 사람의 경우는 母國語의 文法을 익히는 것과는 달리 意識的인 努力을 기울여야만 한다.

이와 같은 英語의 文法規則 가운데서 韓國人으로서, 特히 英語를 배우는 初期段階에 있는 中學生들에게, 제대로 익히기 어려운 分野가 英語의 時制라고 생각한다. 時制란 다음에 引用하는 Sonnenschein의 말처럼 動詞의 形態로 나타나는 時間의 表示裝置이다.

A tense is a form of the verb used to mark the time, the continuance, and the completeness of an action.¹⁾

즉 印歐語인 英語는 屈折語로서 動詞의 形態로 時制를 表示하여 時間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英語가 이와같은 時制로써 時間을 나타낸다고는 하나, 사실상 이것은 動詞의 形態에 의해서만 나타낸다고는 보기가 어렵다. 즉 英語에서도 一時制形 밖에 없는 must 나 ought 등의 動詞가 있는가하면, 正確한 時間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1) E. A. Sonnenschein, *A New English Grammar* (London : Oxford At the Clarendon Press, 1916), p.58.

시간을 나타내는 副詞語句의 도움을 빌어야 하기도 한다.²⁾ 또한 時制는 形態的인 면과 文章속에서 갖게 되는 意味機能이 同時에 考慮되어야 하는 兩面性을 지니고 있다.

Tense can be looked upon two ways. In semantic terms it refers to the time of the predicate in a sentence, while in morphology it refers to the manner in which a verb is marked to indicate that time.³⁾

따라서, 辭典에 나와있는 動詞의 形態로서의 時制와 文章속에서의 時制의 機能은 꼭 같을 수 없다.

中學生들에게 時制가 어려운 점은 바로 이러한 點에 있다고 본다. 個別動詞의 現在時制, 過去時制라고 알고 있던 動詞의 形態가 實際로 文章속에서는 現在時나 過去時가 아닌 것을 나타낼 수도 있는 것이다. 예를 들면 He says it rains in England 라는 文章에서 says 는 時制形은 現在이지만 그것이 意味하는 바는 現在時가 아니다. 이와 같이 時制와 時間의 意味가 一致하지 않은 것도 물론 어려운 점으로 들 수 있겠지만 現在時制와 같이 그 意味하는 바가 여러 범주로 나뉘게 되는 것은 韓國人으로서, 우리말의 습성에 비추어서, 이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는 것이다. 또한 未來時를 나타내는 表現法마다 그 나뉠대로의 意味가 獨特하므로 아직 英語를 배우는 初期段階에 있는 사람들에게겐 그 意味의 差異를 구별하는 일이 결코 쉽지 않은 것이다. 예컨대 未來時를 나타내는 방법에 있어서도, be going to + infinitive 와 will + infinitive 는 그 의미상에 差異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아직 英語를 많이 접하지 않은 중학생이나 一般人들까지도 양쪽의 意味를 전적으로 同一時하는 경향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본 論文은 時制에서 생겨날 수 있는 意味의 不明確한 점을 밝힘과 同時

2) Otto Jespersen, *The Philosophy of Grammar* (London : George Allen & Unwin Ltd., 1925), p.254.

3) Suzett Haden Elgin, *What is Linguistics?* (N. J. : Prentice-Hall, Inc, 1973), p.270.

에, 中學校 教科書에 나와 있는 例文을 中心으로 하여 時制의 지도방향을 새로이 摸索해 봄으로써 중학생의 영어를 가르치는 영어교사들의 교수방법에 一助가 되고자 하는데 그 目的이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第二章에서는 現在時制의 意味와 지도방향을 살핀 다음, 第三章에서는 過去時制와 關聯된 現行 英語教科 지도상의 몇가지 問題點을 分析하고, 第四章에서는 未來時를 나타내는 諸表現法의 意味差異와 함께 그 指導方案을 考察해 보고자 한다.



Ⅱ. 現在時制의 指導方向

現在時制는 時制의 基本이다. 그 理由는 人間의 모든 言語活動은 現在時를 中心으로 하여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言語의 情報機能이 情報交換을 하는데 있다면, 確實한 樣相을 內包하는 未來時의 情報를 支配하는 기점은 現在時에 있게 되는 것이다.

現在라고 할 때 우선은 이 말이 「지금」의 意味로 받아들여지기 쉬울 것이다. 그러나 「지금」이라는 時間은 過去와 未來사이에서 순식간으로 지나가 버리는 時間으로서 엄밀히 말한다면, 「지금」이라는 停止된 時間은 없다는 말이 된다.⁴⁾ 곧 「지금」이란 일종의 抽象的인 概念에 不過하다. 이것을 圖表로 表示해 보면 다음과 같다.



그리고 圖表에서 보는 바와 같이 現在라는 時間은 自然히 過去의 一部와 未來의 一部를 包含하게 된다.

그런데, 文法上에서 말하는 現在時在는 自然界의 이러한 現在時의 概念을 어느 정도까지는 그대로 反映하고 있으나, 時制는 時間과는 반드시 一致하는 것은 아니므로, 다음에 引用한 Leech의 말대로 現在時制는 現在時가 아닌 것도 나타낼 수가 있다.:

4) Otto Jespersen, *Essentials of English Grammar* (London : George Allen & Unwin Ltd, 1933), p.237.

In all the uses of the present tense there is a basic association with present moment of time. (the moment of speech) This association can be as follows: The state of event has psychological being at the present moment. This element does not exclude the possibility of its having actual being at a time other than the present.⁵⁾

이처럼, 現在時制가 現在時的 事件이나 狀態를 나타낸다고 하더라도 때로는 過去時나 未來時的 事件이나 狀態를 나타내는 경우도 있으므로 다른 時制보다도 그 意味範疇가 많고 복잡하다고 할 수 있다.

英語教育의 初期段階라고 할 수 있는 중학교의 英語 教科書에도 이와 같이 多樣的 意味範疇가 거의 網羅되어 나오고 있다. 英語教師로서는 意味範疇의 內容들을 알고 있어야만 適切한 지도가 평소의 수업시에 이루어지리라고 보는 것이다.

A . 現在의 習慣

現在의 習慣은 주로 過去時的 習慣을 土臺로 하여 現在에는 물론 未來時에까지 이 習慣이 反復적으로 일어날 것이 期待되는 意味이다. 그러므로 習慣은 一連의 各個事件들이 過去時에서부터 未來時까지 延長되어서 反復적으로 發生되는 全體的으로 볼 때에는 하나의 狀態를 이루는 것이다.

단순 현재시제는 이 습관의 意味를 나타내는 데 가장 많이 쓰인다. 물론, 過去나 未來時制에로 過去時나 未來時的 習慣의 意味를 나타낼 수 있는 것이지만, 단순 現在時制가 이 처럼 그렇게 자주 習慣의 意味를 가장 많이 나타내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現在時制가 現在時的 事件이나 狀態를 나타내는 것이 보통이라고 한다면 事件의 경우에 있어서 話者と 聽者が 同時に 觀察하고 있는 現在의 事件은 話자가 구태여 그 事件의 狀況을 陳述하지 않아도 聽者は 그 事件의 真相을 잘 알게 되는

5) Geoffrey N. Leech, *Meaning and the English Verb* (London : Longman Group Limited, 1971), p.1.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理由로 單純現在時制는 現在時的 事件을 陳述하는 用法 보다는 現在の 習慣을 意味하는 데 주로 使用하게 된것이다.

둘째, 現在時에 發生하고 있는 事件은 대체로 完了되지 않은 狀況에 處하게 된다. 完了되지 않은 狀況은 곧, 進行狀況에 있음을 뜻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狀況에서는 現在進行形을 使用하게 되는것이 보통이다.⁶⁾

셋째, 動詞중에는 反復의 意味를 가지게 되는 경우가 比較的 많다. 그 理由는 動詞가 나타내는 事件이 단 一回만 發生한 事件으로 여기기가 어려울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경우에 그 事件은 反復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事件이 反復된다는 意味는 곧 習慣을 나타내고 있음을 뜻하는 것이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習慣의 意味를 나타내는 單純現在時制의 用法은 中學校의 現行 一學年 教科書에서도 事件動詞가 처음 쓰인 文章이 이 習慣의 意味를 나타내고 있는 文章일 정도로, 現在時制에서는 가장 基礎的이면서도 重要的 用法이다. 그러나 中學校의 下級學生은 물론 上級生들까지도 그 意味를 確實히 알고 있는가 하는 點에서는 問題가 없는 것도 아니다.

다음 例文 (1)은 中學校 一學年 1學期 教科書 第八課에 나온 習慣의 意味를 나타내는 文章이다.⁷⁾

(1) Jane and Tom study hard. (1-1-8)

學生들은 위의 例文을 「Jane 과 Tom은 열심히 공부한다」로 막연히 알고 있다.

그러나 우리 말의 「공부한다」는 意味는 英語의 現在進行形의 意味 곧, 「……하고 있다」와 混同할 素地가 있다. 즉 “現在時에만 공부한다”는 意味로 理解할 수 있으므로 教師는 Jane 과 Tom은 평소에 열심히 공부하는 學生임을 認識시켜야

6) F. R. Palmer, *The English Verb* (London ; Longman Group Ltd, 1974), p.63.

7) 中學校 一學年 一學期 第八課는 (1-1-8)로 表示할 것이며, 以後는 이 方法에 의하여 中學校 教科書 例文을 表示한다.

한다. 그러므로 위 例文을 우리 말로 解釋할 경우에도 「Jane 과 Tom은 열심히 공부하는 學生이다」로 해주는 것이 習慣의 意味를 더 잘 反映한 解釋이 될 것이다.

그리고 「Jane 과 Tom은 열심히 공부한다」는 우리 말을 英語로 옮기는 경우에도 學生들은 위의 例文 (1)처럼 옮기는 경우와 現在進行形의 文章으로 옮기는 경우가 있다. 그러므로 教師는 文脈 또는 時間을 나타내는 副詞語句들에 依하여 時間的인 意味가 確定지어지는 경우가 많은 우리 말의 特性⁸⁾에 留意하여, 어떤 狀況도 주지 않고 學生들에게 막연히 「그는 열심히 공부한다」를 英語로 옮기도록 指導하지 않은 것이 좋다. 즉 後者의 경우처럼 現在時만을 重視한 英譯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부한다」라고 解釋할 경우에는 우리 말「공부한다」는 現在時뿐만 아니라 過去時와 未來時도 包含되어 있다는 것을 學生들에게 알려줌으로써 이러한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指導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B. 現在時的 事件 또는 事實

現在時的 事件이나 狀況은 普遍的으로 完了되지 않은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러한 狀況에서는 現在進行形을 使用하여 그 狀況을 나타내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單純現在時制로도 現在時的 일이나 狀況을 나타내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에 話者는 陳述內容의 事實 그 自体에만 觀心을 갖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즉 現在進行形은 대체로 未完了된 現在時的 事件의 狀況을 陳述하는 것이므로 動作의 變化와 時間에 焦點을 두고 있지만, 單純現在時制는 陳述內容이 事實에 더욱 觀心을 두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單純現在時制의 用法은 現在時制의 特殊한 用法으로 보기 쉬우나 實은 다음 F. R. Palmer 의 말처럼 現在時制의 基本的인 用法이다:

8) 金在昊·朴炳采外, 新國語學 概論 (서울; 螢雪出版社, 1980), p.47.

...that most of the non-habitual uses of the simple present fit quite normally into the pattern, and ought not to be treated as 'special' uses of the form. On the contrary there is more plausibility in treating habitual usage as secondary to the basic use, in spite of its much greater frequency with this particular form.⁹⁾

그러므로, 單純現在時制가 習慣 곧, 過去時, 現在時, 未來時를 包含하는 事件을 意味하는 경우가 많다고 할지라도 現在時制가 나타내는 意味의 核心은 역시 現在時라고 할 수 있다.

그러면 中學校 教科書에 나와 있는 例文을 살펴 보기로 한다.

(2) David meets Mike and talks to him . (2-1-3)

위의 例文은 對話의 狀況을 事前에 說明하는 文章으로서 現在時에 일어나고 있는 事件의 狀況을 나타내고 있다. 이 경우에 우리 말의 解釋은 「…… 한다」로 해서 별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다음의 例文 (3)을 살펴보면,

(3) Why do you read the book again ? (2-1-6)

學生들이 例文 (3)을 우리 말로 옮기는 경우에도 그 解釋은 「왜 그 책을 열심히 읽느냐」라고 위의 例文 (2)의 경우처럼 대체로 맞게 알고 있지만, 「왜 그 책을 또 읽느냐」를 英語로 옮기도록 해보면 두 가지의 英語文章이 答으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다. 즉 Why do you read the book again ? 과 Why are you reading the book again ? 이라는 두 가지의 英譯이 可能해진다. 그런데, 例文 (4)는 副詞語句를 同半하여 現在時的 事實로서 그 理由에 關心을 두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狀況에서는 英語의 時制는 單純現在時制가 쓰여지는 것이므로, 위의 우리 말을 英語로 옮기는 경우에 前者가 바른 答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教師는 어떠한 일

9) F. R. Palmer, *op., cit.*, p.62.

정한 狀況에 따라서 우리 말을 英語로 옮기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單純現在時制와 關聯하여 한 가지 留意해야 할 點은 教師가 어떤 示範을 보이면서 하는 文章에 있어서의 問題이다. 가령, 教師가 教室門을 열면서,

(4) I'm opening the door.

라고 한다면, 教師는 現在進行形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文章을 만든 것으로 생각할 수 있으나, 다음과 같은 두 가지 點에서 實際的인 文章이 될 수 없다.

첫째, 示範的으로 어떤 行動을 하면서 그 行動을 알리는 文章은 實際로 單純現在時制로 쓰여지는 것이 英語의 慣例다. 그러므로 이 경우는 單純現在時制를 써야 하는 것이다.

둘째, 설령 이와 같은 文章이 學生들에게 現在進行形을 가르치기 위한 한 가지 英語文章이 된다고 할지라도, 話者和 聽者가 함께 同時에 觀察하고 있는 狀況에서 門을 여는 일을 話者가 구태여 陳述할 必要가 없는 것이다. 즉 이와 같은 文章은 事件의 狀況을 觀察할 수 없는 聽者에게 電話나 其他 通信手段에 의해 話者가 하는 行動을 일일이 報告하는 경우라든지, 或은 事件을 觀察할 수도 있는 聽者에게 警告나 威脅을 주는 말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日常生活의 對話에서는 쓰이지 않은 文章인 것이다.

그러므로 위의 例文 (4)는 教室에서 가르친다고 할 때 그 狀況이 問題가 되므로 주의를 해야 할 것이다.

C . 現在의 狀態

o . 狀態와 事件의 概念

英語에서의 狀態와 事件은 時間이 흐름에 따른 變化의 有無에 의하여 區別된다.

즉 狀態는 時間이 지나도 外部에서 어떤 힘이 作用을 加하지 않는한 스스로는 變化가 일어나지 않는데 反하여, 事件은 時間이 지나면 한 狀態에서 다른 狀態로 變化한다. B. Comrie는 다음과 같이 이것에 대하여 설명해주고 있다.:

With a state, unless something happens to change that state, then the state will continue.... With a dynamic situation, on the other hand, the situation will only continue if it is continually subject to a new input of energy.¹⁰⁾

다음에서 例文 (5a)와 (5b)는 狀態와 事件을 各各 나타내고 있다.

(5a) The house sat on the hill.

(5b) The house slide down the hill.

위의 例文 (6a)는 變化가 없는 靜的인 狀態로서 外部에서 힘을 作用해야만 變化가 일어날 것이다. 그러나 (6b)는 집이 미끄러지기 前에는 높은 位置에 있는 狀態에 있었으나 미끄러지고 난 後에는 낮은 位置에 있게 되는 狀態로 變化한다. 그러므로 變化가 없는 것을 意味하고 있는 (5a)의 例文은 狀態를 나타내고 있고, 變化가 있는 것을 意味하는 (5b)의 例文은 事件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狀態와 事件은 文章속에 쓰인 動詞과 關係되는 것으로서 狀態를 나타내는 動詞를 狀態動詞라고 하며, 狀態의 變化를 나타내는 動詞를 事件動詞 또는 動作動詞라고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區別은 어디까지나 文章속에 쓰인 動詞의 意味에 의한 區別이므로 쓰여지는 動詞는 항상 狀態動詞로만 쓰여지는 것은 아니고, 그 意味를 달리하여 事件動詞로도 쓰여지는 경우가 많다.

...there are many verbs that are treated sometimes as stative, sometimes non-stative depending on the particular meaning they have in the given sentence.¹¹⁾

10) Bernard Comrie, *Aspect* (New York :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6), p.49.

11) Bernard Comrie, *op., cit.*, p.39.

결국, 狀態動詞와 事件動詞의 區別은 意味的인 面에서 區別되는 概念이라고 볼 수 있겠으나 同時에 이 區別에 따라서 이 兩者는 文法的인 機能面에서도 差異가 나타나고 있다. 즉 狀態動詞인 경우는 事件動詞와는 달리 文法上 여러가지 制約이 따른다. Quirk는 다음 表에서 보는 바와 같이 動詞뿐만 아니라 形容詞에도 狀態와 事件의 概念을 適用시켜 狀態動詞와 狀態形容詞의 여러가지 文法機能의 制限을 보여주고 있다.

Grammatical Feature	Dynamic	Stative
<i>progressive</i>	I'm learning the language I'm being careful	*I'm knowing the language *I'm being tall
<i>imperative</i>	Learn the language! Be careful!	*Know the language! *Be tall!
<i>pseudo-cleft sentence with a DO pro-form</i>	What I did was (to) learn the language What I did was to be careful	*What I did was (to) know the language *What I did was to be tall
<i>causative construction</i>	I persuaded her to learn the language I persuaded her to be careful	*I persuaded her to know the language *I persuaded her to be tall
<i>manner adverb requiring an animate subject</i>	I learned the language only reluctantly I was careful only reluctantly	*I knew the language only reluctantly *I was tall only , reluctantly
<i>for...sake construction</i>	I learned the language for my fiancée's sake I was careful for my fiancée's sake	*I knew the language for my fiancée's sake *I was tall for my fiancée's sake

12)

12) Quirk, Greenbaum, Leech, Svartvik, *A Grammar of Contemporary English* (New York: Seminar Press Inc., 1972), p.94.

위의 表에서도 알 수 있듯이 狀態를 意味하는 動詞 Know와 形容詞 tall은 그 意味의 靜態性으로 因하여 文法の 機能面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制限을 받고 있다. 이러한 制限事項들 中에서도 重要的 點은 時制와 가장 密接한 關係가 있는 進行形을 만들지 못한다는 것일 것이다.

b. 現在의 狀態

英語의 狀態動詞는 주로 感覺, 知覺, 心的인 狀態, 認識, 感情, 所有, 外觀的인 狀態 및 相互關係 등을 나타내는 動詞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狀態動詞가 現在時制로 文章에 使用되어 나타난 意味가 現在狀態의 意味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時間의 意味面에서 볼 때 現在狀態는 現在時的 事件 또는 事實을 陳述하는 現在時制의 用法처럼 “지금 이 순간”의 狀態만을 意味하지는 않는다. 즉, 過去時에서부터 現在時는 물론 未來時까지 어떤 狀態가 지속될 수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用法은 時間的인 意味에서는 그것이 現在時, 過去時, 未來時를 모두 包 含시킬 수도 있으므로 이 點에서는 現在의 習慣을 나타내는 用法과 類似한 면이 있다.

이와 같은 現在의 狀態를 나타내는 文章은 中學校에서 갓 入學한 學生들이 처음으로 英語를 대하면서 배우기 始作하는 文章으로서, 現在時制에서 習慣의 意味를 나타내는 文章과 더불어 가장 基礎的인 用法의 文章이라고 할 수 있다. 즉 中學校 一學年 教科書에서 가장 앞 部分에 나와 있는 be 動詞와 have 動詞가 들어있는 文章이 모두 狀態를 나타내는 用法의 文章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be 動詞와 have 動詞의 學習段階를 벗어나면서부터 狀態動詞가 쓰인 文章의 올바른 理解가 쉽지 않음은 學生들에게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면 다음 中學校 教科書의 例文에서 살펴 보기로 한다.

(6) Do you know anything about Thomas Edison ? (2-1-6)

學生들은 現在進行形의 우리 말의 意味 곧, 「……하고 있다」를 배운 후에 위 文章을 배우게 된다. 따라서 學生들은 그 나름대로 이미 배운 바 있는 現在進行形의 意味와 混同을 피하기 위하여 「Edison 에 관해서 뭐 좀 알고 있니?」라고 하는 대신에 「Edison 에 관해서 뭐 좀 아니?」라고 막연히 번역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경우에 學生들은 狀態動詞도 事件動詞처럼 進行形을 항상 옆두에 두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教師는 學生들에게 위 文章을 번역해주는 경우에는 적어도 알고 있는 狀態를 은연중에라도 認識시키기 위해서는 「…… 알고 있니?」로 항상 번역시켜주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와 같은 學生들의 誤謬는 우리 말을 英語로 옮기는 경우에도 그대로 드러나는 것을 본다. 우리 말의 「나는 그를 미워한다」와 「나는 그를 미워하고 있다」는 意味上으로 差異가 없다. 만일 後者를 學生들이 英語로 옮기는 경우 單純現在時制 대신 現在進行形을 써서 英語文章을 만드는 學生이 있는 것이다.

결국, 中學校의 英語 教科課程에서는 事件動詞와 狀態動詞의 概念을 區分하여서 가르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다음에 引用하는 M. Finochiaro 의 말처럼 進行形으로 使用되어서는 안되는 中學校 課程의 몇개의 基本的인 狀態動詞는 學生들에게 意識적으로 가르쳐 주어야 할 것이다.:

Whenever there is any danger that students will make a false or incorrect analogy, it is desirable to indicate the limitations and restrictions of the structure you are teaching. To repeat a point made above: if in English, for example, you had taught verbs such as *know*, *like*, and *need* in the simple present, it would be necessary to make the students aware of the fact—when you are presenting the “ing” present—that those verbs are never used with “ing.”¹³⁾

13) Mary Finochiaro & Michael Bonomo, *The Foreign Language Learner* (New York : Regents, 1973), p.85.

물론 이 때는 文法을 위한 文法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되며, 文法用語가 使用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D. 未來時를 나타내는 單純現在時制

未來時를 나타내는 한 가지 方法으로서 單純現在時制로 未來時를 나타내는 경우가 있다. 原來 英語는 古代英語時代부터 두 가지 時制, 즉 現在時制와 過去時制밖에 없었다. 그러므로 古代英語時代에는 現在時制形의 動詞를 가지고 未來時를 나타내는 時間의 副詞語句를 援用하여 未來時를 나타내었다. 그래서 이와 같은 方法으로 未來時를 나타내는 일은 다음에 引用하는 G. O. Curme의 說明대로 現代英語에서도 그대로 未來時를 나타내는 한 가지 方法으로 쓰이고 있으며, 實際로 오늘날에도 頻繁히 使用되고 있다.:

In oldest English the present tense was the useful form employed to express future time and it is still commonly employed for this purpose where an abverb of time or the situation make the thought clear. "The ships sails tomorrow until I come."¹⁴⁾

그리고, 意味面에서 볼 때, 이 用法은 Curme의 위 引用文에서도 약간 言及이 되고 있는 바와 같이, 이것은 어떤 狀況으로 미루어 보아 未來時에 確實하게 일어날 事實을 나타내거나 또는 計劃이나 合議에 의한 未來時에 일어날 確定된 事件을 意味하게 된다. 그러므로 第四章에서 살피게 될 未來時를 表現하는 諸 方法과는 意味에서 差異가 있는 것이다. 즉, 未來時에 있게 될 일은 過去時의 일이나 現在時의 것에 比하면, 未來時의 性格上, 斷言하기가 어려운 것이다. 그러므로 이 用法은 다음 例文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未來時를 나타내는 다른 어떤 表現法보다도 未來時에 있을 틀림없는 狀況을 나타내는 것이다.

14) George O. Curme, *English Grammar* (New York ; Barns & Noble, 1947), p.78.

(7) The train leaves at 7:30 this evening.

즉, 公信力이 있는 機關이 確定하고 公表한 時間表대로 列車의 發着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므로 위 例文 (7)은 未來時에 있게 될 列車의 出發이 變動이 없는 確定的인 事實임을 反映하고 있는 것이다.

다음의 것은 中學校 教科書에 나와 있는 例文이다.

(8) We have another baseball game within a week (2-1-7).

學生들은 위 文章을 「일주일 以內에 또 한 차례 야구경기가 있다」라고 대체로 무리없이 알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合議된 決定이나 計劃에 依해서 야구競技를 갖는다는 具體的인 意味는 理解하지 못하고 있다. 實際로 中學校 二學年에서 위의 例文 (8)을 배운 바 있는 學生들이 中3이나 高等學校에서 위의 우리 말을 英語로 옮기도록 시켜보면 거의 다 We will have another baseball game within a week. 라고 한다. 만일 위의 例文 (8)을 배울때에 이러 이러한 狀況에서는 現在時制로 未來時를 나타낼 수 있음을 具體的으로 배웠다면 will 을 使用하여 文章을 만든 學生의 數는 훨씬 적어졌으리라고 본다. 물론 여기에서 will 을 使用하여 만든 文章이 틀린 것이라고는 할 수 없을지라도 어떠한 狀況을 正確하게 表現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教師는 例文 (8)과 같은 文章을 가르칠 때에 現在時制로도 未來時를 나타낼 수 있는 點과 함께 그 意味의 特性까지도 가르쳐 주어야 할 것이다. 즉, 이미 計劃되어 未來時에 確實하게 나타날 것이 기대되는 事件을 이야기 할 때에는 現在時制를 使用하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에, 위의 例文 (8)에서도 본 것처럼, 그 意味가 現在의 習慣이나 狀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未來時에 일어날 計劃된 事件이란 點을 指導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때에는 「…… 이 다시 있을 豫

定이다」처럼 우리 말로 좀 더 자세히 數術해서 말해주는 것도 한 가지 方法이 될 것이다.

E. 過去時를 나타내는 單純現在時制

現在時制로써 過去時를 나타내는 用法은, 이른바 劇的 現在 또는 歷史的 現在라고 불리우는 것으로서, 話者가 일단 時間이나 記憶 등의 觀念을 무시하고서 마치 過去時의 事件이 現在時에 發生하고 있는 것처럼 事實을 생생히 묘사하기 위해서 쓰이고 있는 用法으로서, 文語와 國語에 모두 使用되고 있다. G. O. Curme 은 이 用法의 쓰임새를, 다음의 그의 說明에서 보듯이, 文語的인 面에다 力點을 두고 있다.:

The historical present, though now a favorite in the lively literary style, was almost unknown in the literature of the old English period. It did not become common in the literary language until about 1300. From then on its frequent use indicate that its evident advantage in lively discription had at last become appreciated in the higher forms of literature.¹⁵⁾

그러나 O. Jespersen 은 이 用法이 大衆에 基盤을 두고 發生한 英語 固有의 口語에서 그 起源을 찾으려고 함으로써 口語的인 面을 強調한다.:

Some scholars think the use of the dramatic present in English is due to literary influence from abroad; but I can not help thinking that it is of popular native growth; this at any rate seem indubitable with regard to the insertion of "he says," etc. in report of past conversation.¹⁶⁾

아무튼, 英語를 배우는 주요한 目的이 意思傳達의 能力을 培養하는 데 있다고 본다면, 이 用法이 英語口語民의 日常 口語로써도 쓰인다는 點이 우리에게는 더 重

15) George O. Curme, *Syntax* (Boston : D. C. Heath and Company, 1931), p.356.

16) Otto Jespersen, *Modern English Grammar, Pt IV* (London : George Allen & Unwin Ltd, 1944 ~ 49), p.20.

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사실상, 現行 中學校 教科書에도 이 用法에 該當되는 것으로서 다음과 같은 例文이 나와 있다.

(9) He says it rains a lot in England. (2-2-3).

學生들에게 위 例文 (9)를 번역시켜보면 大部分의 경우 「…… 이라고 말한다」라고 한다. 이것은 學生들이 現在時制는 무조건 現在時만을 나타낸다고 믿기 때문에 나오는 結果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우리 말 「네가 미국에 간다고 들었어」를 學生들이 英語로 옮길 때는 I hear you are going to America 의 傳達動詞 現在形 hear 대신에 heard 를 쓴다. 이것도 역시 過去時制만이 過去時를 나타낸다고 믿기 때문에 나오는 結果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이 때 heard 를 썼다고 해서 전적으로 틀렸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나 傳達內容이 現在時에도 有用한 情報라면 現在形이나 現在完了形을 쓰도록 해야 옳을 것이다.

그러므로 위 例文 (9)에서 says 는 現在時制로 되어 있지만 says 라고 하는 事件이 일어난 때는 過去時이므로 번역도 「… 비가 많이 온다고 말했다」처럼 過去로 번역해주는 것이 자연스러운 번역이 되는 것이다. 이처럼 間接話法의 傳達動詞는 現在時制를 使用하면서도 過去時를 나타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기서 例를 들고 있는 says 뿐만 아니라 이와 비슷한 傳達動詞의 경우에도 위에서 말한 趣旨는 그대로 適用된다. 따라서 이러한 英語表現과 우리 말의 差異點에 留意하도록 指導해야 될 것이다.

Ⅲ. 過去時制와 關聯된 問題點

單純 過去時制는 單純 現在時制와 마찬가지로 過去時의 狀態, 習慣, 事件의 意味를 나타내지만, 그 區別이 現在時制처럼 重要하지 않다. 그 이유로 過去時制가 過去時의 狀況을 意味하는 限, 그것이 過去의 狀態, 習慣, 또는 事件이든, 現在時點에서 볼 때 確實한 모습으로 나타나므로, 이미 하나의 끝나버린 事件으로 取及할 수 있다. 따라서 나타내는 의미도 現在時制처럼 그다지 복잡하지는 않다.

그러나 時制는 動詞의 形態로 表示되어 나타나므로 過去時制形과 關聯지어 부수적으로 나타나는 문제가 있다.

첫째, 과거시제는 대화에서 겸양의 뜻을 지니기도 한다. 그러나 실지로 의미하는 時間은 現在時이다. 다음의 例文에서와 같이

(10a) Do you want me ?

(10b) Did you want me ?

위 例文中 (10a)는 무뚝뚝하고 직선적인 표현이다. 그러나 (10b)는 보다 間接的이고, 迂廻的인 표현으로서 相對方이 拒絕할 수 있는 餘地를 남기는 婉曲한 意味가 된다. 그 이유는, (10a)는 상대편 요구에 응하겠다는 심리적 움직임을 나타내는 문장이지만 (10b)는 그러한 심리적 움직임이 없이 경우에 따라서는 거절할 수 있다는 意味가 암암리에 내포된 문장이다. 現行 中學校의 教科서에 나와 있는 例文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11a) Would you take me to uncle's farm ? (2-1-8)

위 예문에서의 Would가 의미하는 바를 학생들은 수업시간에 익혀서 알고 있는

데, 교사는 그것을 가르칠 때는 法助動詞의 과거형¹⁷⁾ could, might 等도 아울러서 마찬가지로 婉曲의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가르쳐줌으로써, 이들이 정중한 표현을 나타내는 데 사용된다는 점을, 인식시켜 정중한 표현에 익숙하도록 지도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둘째, 間接 話法에서 주절의 전달 동사가 과거일 때 종속절의 동사도 과거로 되어야 하는 時制의 一致에는 여러가지 例外가 있다. 그중에 중학교의 교과서에 나온 것을 例文으로 들어 본다.

(12a) He said English is becoming more and more important as a world language. (3-1-5)

(12b) He said English was becoming more and more important as a world langu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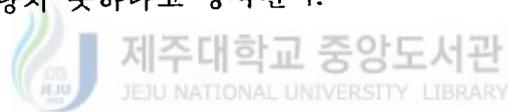
위 例文中 (12a)가 교과서에 나온 例文이다. 따라서 (12b)는 完全히 틀린 문장이라고 學生들이 곧잘 생각한다. 그 이유로는 학교문법의 범위내에서 볼 때 「英語가 점점 더 重要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眞理로 취급하여서, “He said the earth moves round the sun,”의 文法 범위에 包含시켜 가르치기 때문이다.

그러나 (12a)의 例文처럼 時制一致에 例外가 생기게 된 것은 「英語가 重要해져 간다」는 사실이 진리라기 보다는 話者が 지닌 觀點의 差異 때문이라고 보는 편이 옳다. 즉 (12a)는 英語가 점점 중요해져 간다」는 사실을 話者が 主觀的인 자기의 立場까지도 연루시키고 있으나, (12b)는 「英語가 점점 중요해져 간다」는 사실을 話者が 원래의 陳述時點에서 把握하고 있어서, 自身の 主觀을 사실에 연루시키지 않은 客觀的 陳述이 된다. 따라서 교사는 위에 적은 사실을 인식하고, 가

17) 法助動詞의 特徵의 하나가 이러한 婉曲의 意味를 나타내는 것인데, 婉曲의 意味를 지니는 文章은 條件節이 省略된 가정법 文章으로 여겨질 수 있다.
(cf. F. R. Palmer, *op. cit.*, p.127.)

령 (12a)와 (12b)의 두 문장을 제시하여 둘중 옳은 것을 골라내도록 출제해서
는 안될 것이다.

이와 비슷한 경우로서, “ I wish I (were,was) beautiful ”인 文章에서 처럼
be 동사 고르기의 문제가 자주 출제되고 있는 바, 이 문제에서 was를 選擇한 경
우 非文法的이라는 觀點에서 항상 誤答으로만 처리되어 버리는 경우이다. 그러나
informal English¹⁸⁾에서는 was도 사용이 可能하다. informal English는 영어
를 사용하는 국민이 평소의 담화에서 사용하는 言語로, 言語의 주된 機能이 의사
전달에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現在와 같이 文語 위주의 formal English만을 고
집한다는 것은 생각해 볼 문제이다. 그러므로, 교실에서는 were를 쓰는 것을 原
則으로 가르친다 하더라도, was는 비록 informal 하나 영어 원주민이 쓴다는 점
과 의사 전달 能力을 배양시키는 영어 教育임을 고려한다면, 이와 같은 종류의 試
驗 問題 출제 등은 적당치 못하다고 생각된다.



18) Leech and Svartvik, *A Communicative Grammar of English* (London : Longman Group Ltd, 1975), p.24.

IV. 未來時의 諸表現法의 意味差異와 그 指導方向

英語는 原來 게르만語의 特徵¹⁹⁾인 三時制의 言語이다. 그러므로 未來時를 나타낼 때는 다음 몇가지 形態에 依하고 있는 것이 普通이다.

- 1) will / shall + infinitive
- 2) be going to + infinitive
- 3) 現在進行形
- 4) 單純現在時制
- 5) 未來進行形

이 가운데 4) 단순 현재시제로 未來時를 나타내는 경우는 이미 앞의 제 2장에서 살핀 바 있으며, 또한 5) 未來進行形으로써 未來時를 나타내는 경우는 아직 중학교 과정에는 나타나 있지 않다. 그러므로 본 四章에서는 1) will / shall + infinitive, be going to + infinitive 및 3) 現在進行形에 대해서 살피기로 한다.

그런데 위의 諸形態들이 未來時를 表現한다고 하더라도 그 나타내고 있는 意味가 다음에 引用하는 Leech의 말대로 똑같지 않다.

These verb forms all have their particular nuances of meaning, and are far from being generally interchangeable.²⁰⁾

그러나 英語를 배우는 初期 段階에 있는 中學生들이 어느 정도 배우고 난 후에는 各 表現法들이 똑같은 意味를 갖는 表現法이라고 보기 쉽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우리 말의 「~ 하겠」하는 표현을 모두 will / shall 을 써서 나타내려고 한다.

19) C. L. Wrenn, *The English Language* (London : Methuen & Co Ltd., 1949), p.16.

20) Geoffrey N. Leech, *op. cit.*, p.51.

그러나 지나치게 will/shall + infinitive 를 많이 使用함으로써 경우에 따라서는 그 나타내는 意味가 多少 狀況에 맞지 않거나 때로는 完全하지 못한 意味를 表出하게 된다. 따라서 未來時를 表現함에 있어서 적당한 狀況이나 意味에 구애받지 않고 will/shall + infinitive 를 쓴다는 것은 결국 나중에 영어를 學習할 때 試行錯誤의 過程을 밟게 된다는 것을 뜻한다. 물론 試行錯誤의 과정은 人間이 다른 것을 學習할 때 처럼 言語를 배우는 과정에서도 必然的인 과정이다.²¹⁾

그러므로 이러한 試行錯誤를 어느 정도로 줄이기 위해서는, 英語 學習의 初期單階인 中學校 過程에서 이와같은 未來時의 諸表現法들의 意味差異를 認識토록 學生들에게 意識적으로 가르칠 必要가 있다고 본다. 이 때에도 어느 때와 마찬가지로 文法的인 술어 사용은 피해야 할 것이다.

A . Will/shall + infinitive 와 關聯된



未來時 表現上의 問題

原來 will(O.E willan)은 ‘意志를 行使하다’의 意味를 가지는 本動詞였으며, 또한 shall(O. E Sceolan)도 ‘義務를 지다’ ‘命令을 履行하다’의 意味를 지닌 本動詞로 쓰였다. 따라서 現代 英語에서도 will/shall은 本來 가지고 있었던 ‘意志와 義務’의 意味를 잃지 않고, 주로 法助動詞로 使用되고 있는 한편, 그 本來의 意味를 거의 잃어 버리고 未來時를 나타내는 助動詞로 쓰이고 있다. 그러나 will/shall의 이 兩 쪽 機能은 때에 따라서는 따로 分離할 수 없을 만큼 서로 密接하게 關聯되어 있으며 P. Roberts는 이 事情을 다음과 같이 言及하고 있다.:

21) H. Douglas Brown, *Principle of Language Learning and Teaching* (New Jersey : Prentice-Hall, Inc, 1960), p.164.

The complexity of modern usage of *shall* and *will* stems from the fact that they have acquired pure future meaning without altogether losing their modal force of obligation, and volition. They shift from modal meaning to future meaning, not only according to context but also according to speaker.²²⁾

즉, 未來時의 性格上 法助動詞의 意味 곧 意志 및 義務와 未來時를 나타내는 助動詞는 서로 關聯될 수밖에 없을 것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그 兩 쪽을 따로따로 區分한다는 것은 전혀 不可能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을 概略적으로 구분한다면 學校文法에서 말하는 소위 意志未來로 불리우는 內容은 意志나 義務등의 意味를 지니는 法助動詞로 볼 수 있을 것이며 單純未來로 불리우는 內容은 豫測의 意味를 內包하고 있는 比較的 純粹한 未來時를 나타낸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그 理由는 그것이 意味하는 바의 意志나 義務는 未來時의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現在時의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다만, 그것이 未來時의 것으로 느껴지는 이유는 現在時의 意志 및 義務의 履行에서 나타나는 過程과 結果가 未來時와 密接하게 關聯되어지는 것이 一般的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比較的 純粹한 未來時를 나타내는 것은 豫測의 意味를 內包하고 있는 學校文法의 單純未來에 該當하는 內容이 되겠으나, 이것 또한 完全히 無色透明한 未來時는 아닌 것이다. 그 이유는 不確實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未來時를 豫測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話者의 心的인 判斷이 가미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英語教育에서, 特히 中學生인 點을 勘案할 때, 特殊한 경우를 除外하고는 위에서 말한 兩쪽의 內容을 完全히 分離시켜서 가르칠 必要는 없을 것이다. 다만, 問題가 되는 것은 學生들이 *will/shall + infinitive* 를 거의 全적으로 未來時制로 錯覺하게 되는 점일 것이다. 이와같이 착각하게 되는 理由는 *will* 의 比較的 純粹한 未來時를 나타내는 用法에서 비롯된다.

22) Paul Roberts, *Understanding Grammar*(New York : Harper, 1954), p.150.

즉 中學生들은 母國語를 完全히 익힌 뒤에 英語를 배우게 되는 셈이므로 우리말의 未來時 表現法, 물론 狀況에 따라서 달라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대개 「할 것이다」, 「하게 될 것이다」를 머릿속에 그리면서 英語의 이와 비슷한 豫測의 意味가 內包되어 있는 will 을 배우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다음 例文, 즉 中學校 教科書에 나오는 will 의 初出 用法에서부터 위의 韓國語 表現法과 will 을 同一視하게 된다.

(13a) The flower will come out soon (2-1-1)

(13b) Shall I write a letter to uncle (2-1-8)

學生들은 「곧 꽃이 필 것이다」라고 위의 例文 (13a)에서부터 배우고 난 후에는 will 이 나올 때마다 그것이 豫測의 意味를 內包하는 것이든 主語의 意志를 內包하는 것이든 거의 「~할 것이다」로 알게 된다. 상대방의 意志를 구하는 例文 (13b)에서부터 배우는 shall 도 우리말 「~할까요」의 「할」에서부터 유추하여 未來時制로 낙착해 버리게 된다. 그래서 學生들은 未來를 나타내는 未來時制가 will / shall + infinitive 인 줄 알고 未來時를 나타내는 表現法은 거의 全的으로 will / shall 에서 求하게 되는 것이다. 즉, 다음 절에서 살피게 될 be going to 의 意味는 will / shall 과 같다는 等式을 조건 없이 成立시켜 나가는 것이다. 이것은 결국 우리말의 習慣에 의한 母國語의 간섭현상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未來時를 나타내는 諸表現法에는 그 나름대로의 特殊한 意味와 그것들이 쓰이는 여러 가지 狀況이 있다는 點을 勘案할 때, 教師는 우리말의 습관에 따른 will / shall 의 지나친 남용을 防止하는 意識的인 努力을 기울여야 한다. 이와 같은 우리말의 습관에서 오는 will / shall 의 濫用을 防止하기 위해서는 다음에 引用하는 W. M. Rivers 의 말처럼, 교사는 이러한 諸 未來時 表現法들의 意味 差異를 學生들에게 가르쳐야 할 뿐만 아니라, 그것들이 쓰일 수 있는 狀況을 設定하여

學生들이 意識的으로 그 쓰임새등을 演習하게 함으로써 各 表現法에 熟達되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 Where there is contrast, native-language interference will be a constant problem: the student's native-language habits will tempt him to follow the pattern of his own language at that point (e.g., using the foreign-language adjective and noun in his native-language pattern of noun + adjective), and intensive practice alone will not be sufficient to free him from this tendency when he is trying to express himself in communication. He will need to be alerted to the specific point at which interference will repeatedly occur, so that he may practice with awareness and concentration and monitor his own production with watchfulness until he finds himself producing the target language forms with ease and accuracy.²³⁾

B. Be going to + infinitive 意味의 檢討

be going to + infinitive 로써 未來時를 나타내는 方法도 未來時의 表現法 가운데서 많이 쓰이고 있는 것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be going to는 하나의 助動詞로 여겨질 수 있는 것으로서, 그 發音 또한 다음에 引用하는 F.R. Palmer의 說明처럼 弱形이 使用되어야 할 것이다.:

Morphologically, they share with the auxiliaries the existence of weak forms which vary from [gənə] to [g], when the appropriate form of be preceding!

I am going to do that
[aim gənə du : ðæt]
[aiŋ ŋ du : ðæt]²⁴⁾

즉 be going to 는 go 라는 一般動詞라는 意味의 面에서 볼 때에는 관계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強形을 使用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23) Wilga M. Rivers, *Speaking in Many Tongues* (Massachusetts : Newbury House Publishers, Inc., 1972), p.39.

24) F. R. Palmer, *op. cit.*, p.163.

이 **be going to + infinitive** 가 나타내는 未來時의 意味는 다음 두가지 경우로 나뉘어서 생각할 수 있다.

첫째, 그것이 主語를 人間으로 하는 경우로서, 이것이 意味하는 바는 現在時에 있는 주위의 여러가지 狀況이나 或은 結果를 바탕으로 하는 主語의 意圖가 未來時에 수행되어질 것으로 나타난다. 다음의 例文 (14)을 살펴보기로 한다.

(14) She is going to have a baby.

위의 例文 (15)은 다음과 같은 現在時의 狀況을 나타내어 주고 있다.

(15) She is already pregnant.

다음은 中學校 教科書에 나와 있는 例文이다.

(16) I'm going to spank you.

위의 例文 (16)은 主語인 'I' 가 相對方인 'you' 에게 「너 엉덩이좀 맞아 야겠다」는 말로서 여기서 말하는 상대방인 'you' 는 現在까지 잘못된 일을 저지르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둘째, **be going to + infinitive** 가 人間 外의 것을 主語로 가지는 경우로 이것이 意味하는 바는 現在時의 原因이나 狀況이 未來時에 있어서는 結果로서 나타나는 것을 意味한다.

다음의 例文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17b)은 中학교 교과서의 例文이다.

(17a) It's going to rain.

(17b) It's going to be a fine day (2-2-6).

위의 例文들을 다음과 같이 現在時에 있는 原因을 暗示해주고 있다.

(18a) I can see the black clouds gathering

(18b) It stopped raining.

그러므로 이 *be going to + infinitive* 는, 現在時의 狀況이나 原因이 未來時와 關聯되어 있기 때문에, 다음의 引用文에서 보는 바와 같이 完了形과 對應하는 概念인 *prospective* 라고 Comrie 는 말하고 있다.:

The perfect is retrospective, in that it establish a relation between a state at one time and a situation at an earlier time. If languages were completely symmetrical, one might equally well expect to find prospective forms, where a state is related to some subsequent situation, for instance where someone is in a state of being about to do something.²⁵⁾

따라서, 現在時의 結果가 未來時와 關聯을 갖는다는 것은 곧, 가까운 未來時와 關聯을 갖는 경우가 많을 것이므로, *be going to + infinitive* 는 時間을 나타내는 副詞 語句가 없을 때는 가까운 未來時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時間을 나타내는 副詞 語句가 同伴되었을 때는 먼 未來時를 나타내는 경우도 있으며, 이 때는, 未來時의 性格이 不確實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will/shall + infinitive* 와 거의 같은 뜻인 豫測의 意味가 內包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어떤 意味에서는 *be going to + infinitive* 가 純粹한 未來時의 表現法이라고 할 수도 있다. 그 理由는 *will/shall + infinitive* 가 豫測의 意味를 갖는 外에도 意志의 意味를 가지고 있으므로 이것이 文章에서 나타날 때에 誤解의 素地를 남길 수도 있기 때문이다.

결국 教師는 *be going to + infinitive* 의 意味가 *will/shall + infinitive* 와는 같지 않다는 點에 주목하여, 適切한 狀況에서 이 두 形態의 未來時 表現法이

25) B. Comrie, *op. cit.*, p.64.

使用되어질 수 있도록 指導해야 할 것이다.

C. 現在 進行形의 意味의 檢討

現在進行形은 이미 計劃되거나, 決定에 依해서 未來時에 있을 것으로 豫想되는 일을 나타낸다. 이미 살핀 바 있는 單純 現在時制로써 未來時를 나타내는 것과는 差異가 있다. 이 두 表現法이 모두 계획이나 결정에 의한 未來時의 일을 나타내는 점에서는 거의 같으나, 前者는 多少 變更도 可能한 未來時의 일이라고 할 수 있으나 後者는 變更이 不可能한 確固한 계획이나 결정에 의한 未來時의 일이라고 할 수 있다.

(19a) We start for Istanbul tonight.

(19b) We are starting for Istanbul tonight.

위의 例文은 둘 다 계획에 依한 未來時를 나타내고 있으나 (19a)는 권위있는 機關이나 委員會가 결정한 계획일 수 있으므로 取消가 전혀 不可能한 未來時의 일을 나타내고 있으나 (19b)는 主語의 의도도 다소 包含될 수 있는 未來時의 일로서 取消나 變更의 可能性도 多少間 있다고 볼 수 있다.

다음은 中學校 教科書에 있는 例文이다.

(20) Alice and Betty are going on the School picnic tomorrow. (2-1-5)

위의 例文은 計劃, 곧 학교의 決定에 依해서 逍風을 가게 된다는 意味이나, 막연히 「Alice와 Betty는 내일 학교逍風을 가게 된다」는 것으로 學生들은 이해한다.

그러나 學生들은 現在進行形으로 未來時를 나타내는 것을 알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그것이 가까운 未來時의 일을 나타내는 것임을 알고 있으나 어떠한 狀況에서 구체적으로 그것이 使用되어지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다. 그러므로 위에 든 例文 (20)이 나올 수 있는 狀況에서도 대개는 意志의 意味가 가미된 will을 使用

하여 未來時를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교사는 위에 든 例文 (21)이 나올 경우에는 학교의 계획에 의한 未來時의 일이라는 狀況 說明이 있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경우에도 will을 쓰는 일이 없도록 指導해야 할 것이다.



V. 結 論

以上에서 現在時制 및 過去時制와 關聯된 問題點과 未來時를 表現하는 形態를 살펴봄과 同時에 이에 대한 指導方向도 模索해 보았다.

1. 現在時制는 時制의 基本으로서 根本적으로는 現在時를 나타내는 時制라고 할 수 있으나, 그 意味範疇가 多樣하여 過去時와 未來時까지 나타낼 수도 있다. 現在時制가 現在를 나타내는 경우에도 그 意味는 다 같은 것이 아니고 現在時만을 나타내는 것을 비롯하여, 過去時와 未來時까지 包含하는 意味인 現在習慣이나 狀態도 나타내게 된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複雜한 意味를 지니고 있는 現在時制를 指導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點에 留意하여야 할 것이다.

A. 現在의 習慣을 나타내는 경우, 가령 They study hard 를 「열심히 공부한다」로 옮긴다면, 이 翻譯은 現在時的 事件만을 言及하고 있는 것처럼 誤解를 불러 일으킬 수 있다. 그러므로 學生들을 指導할 때는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이다」로 하여 반드시 現在時に 進行中인 行動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님을 明白히 해야 할 것이다.

B. 現在의 狀態를 나타내는 경우, 우리 말의 「...하고 있다」는 흔히 英語의 進行形으로 表現되는데, I have a house 를 「집을 가지고 있다」라고 번역하는 경우처럼 英語에서는 進行形이 아닌 것도 우리 말로는 「...하고 있다」라고 翻譯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우리 말의 「...하고 있다」를 英語의 進行形으로 옮기지 않도록 指導해야 할 것이다.

C. 未來時를 나타내는 경우, 未來時的 確定된 事實이나 計劃등은 現在時制로도 나타낼 수 있는 것임을 指導하여 반드시 will/shall이 있어야만 未來時를 나타내는 것으로 여기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 말을 英語로 옮기는

경우에도 狀況에 附屬되면 언제나 現在時制로도 未來時를 나타낼 수 있다는 事實을 認識시켜야 한다.

D. 過去時를 나타내는 間接話法에서, 가령 傳達動詞 say 등이 現在時制로 쓰였을 경우에 時制는 現在時制이지만 그 意味는 過去時를 나타내고 있음을 指導해야 한다. 또 우리 말을 英語로 옮기는 경우에도 그 傳達動詞의 時制가 過去形이 쓰이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2. 過去時制와 關聯하여 특히 比重을 두어야 할 點은 法助動詞의 過去形을 사용한 鄭重한 表現法에 留意해야 할 것이며, 그것이 過去時를 나타내는 것으로 誤解하지 않도록 指導해야 할 것이다.

3. 英語에서 未來時題는 없고 未來時를 나타내는 여러가지 形態의 表現法이 있으며, 各 形態의 表現法들은 各各 그 意味가 다르다.

A. will/shall + infinitive 는 비교적 純粹한 未來時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豫測의 意味뿐만 아니라 話者의 心的인 態度를 나타내는 法助動詞의 意味도 同時에 가지고 있다. 中學生들은, 이 表現法이 갖는 狀況도 考慮하지 않고, 이 表現法을 우리 말의 「…할 것이다」등과 同一時하여 英語로 未來時를 나타내려고 할 때 이것을 지나치게 많이 사용한다.

B. Be going to + infinitive 는 未來時에 遂行될 意圖나 結果를 意味하는 表現法이므로 單純한 豫測이나 意志의 意味가 있는 will/shall + infinitive 와는 그 意味가 다르다.

C. 現在進行形은 이미 決定된 計劃에 依한 未來時의 일을 意味하는 것이므로 單純現在時制로 未來時를 나타내는 경우와는 비슷하다고 할 수 있으나 現在進行形은 未來時의 일이 多少 變動될 수도 있는 可能性을 內包하고 있는 點에서는 單純現制時制와는 다르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教師는 上記한 未來時의 表現法들의 意味差異를 認識하고, 上記한 어

러가지 未來時 表現法의 差異點에 力點을 두어서 學生들을 指導함은 물론, will / shall + infinitive 의 過度한 使用을 調節하여 狀況에 알맞는 未來時의 表現法을 쓰도록 意識的으로 努力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參 考 文 獻

- 1) Brown, Douglas H. *Principle of Language Learning and Teaching*. New Jersey : Prentice-Hall, Inc., 1980.
- 2) Comrie, Bernard. *Aspect*.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6.
- 3) Curme, George O. *Syntax*. Boston: D. C. Heath and Company, 1931.
_____ . *English Grammar*. New York: Harper & Row, Publishers, Inc., 1947.
- 4) Elgin, Suzette H. *What is Linguistics?* New Jersey: Prentice-Hall, Inc., 1973.
- 5) Finochiaro, M. & Bosnomo, M. *The Foreign Language Learner*. New York: Regents, 1973.
- 6) Jespersen, Otto. *The philosophy of Grammar*. London: George Allen & Unwin Ltd, 1924.
- 7) _____. *Essentials of English Grammar*. London: George Allen & Unwin Ltd., 1933.
- 8) _____. *Modern English Grammar*, Pt IV. London : George Allen & Unwin Ltd, 1944-49.
- 9) Leech, Geoffrey N. *Meaning and the English Verb*. London : Longman Group Ltd., 1971.
- 10) Leech & Svartvik. *A Communicative Grammar of English*. London : Longman Group Ltd., 1975.
- 11) Palmer, F. R. *The English Verb*. London : Longman Group Ltd., 1974.

- 12) Quirk, Greenbaum, Leech, Svartvik. *A Grammar of Contemporary English*.
New York: Seminar Press Inc., 1972.
- 13) Rivers, Wilga M. *Speaking In Many Tongues*. Massachusetts : Newbury
House publishers, Inc., 1972.
- 14) Roberts, Paul. *Understanding Grammar*. New York : Harpers, 1954.
- 15) Sonnenchein, E. A. *A New English Grammar*. London : Oxford At The
Claredon Press, 1916.
- 16) Wren, C. L. *The English Language*. London : Methuen & Co., Ltd., 1977.
- 17) 金在昊外, 新國語學概論, 서울 : 螢雪出版社, 1980.
- 18) 文教部, 中1,2,3 英語教科書 全六卷, 서울 : 國政교과서주식회사, 1981.



Summary

A way in the teaching of English tense

Kim Dong - Baek

*Department of National Ethics Major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Jeju Korea*

Supervised by Professor Hwang Un-Jaek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consider the various problems of English tenses and to present the ways of teaching tenses in middle school English classes in Korea.

In chapter II, English present tense is examined on the basis of its meaning, and the ways of teaching the tense in the class is presented with the problems caused therewith.

Though, the present tense is associated with the present moment of speech, it has various categories of meaning. Therefore its element of meaning include the possibility of indicating a time other than the present; the present tense in special circumstances can refer to past and future time. And in the case where it refers to the present it has several meaning categories which refer to the fact happening now, and states and habits at the present while are, in a strict sense, regarded as including past and future time.

Therefore, in teaching the tense which has the complicated meaning elements, the English teacher should consider the situation in which each usage of the tense to be used, paying attention to the Korean expression.

In chapter III, the point which is stressed in teaching the past tense is the past tense forms of the modal auxiliary verbs which indicate the tentative meaning.

* A thesis submitted to the Committee of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Master of Education in May, 1983.

In chapter IV, several important forms of expressing future time are presented with the particular meaning elements which each form has.

Though all the forms of the expression of future time have their particular nuances of meaning, and are far from being generally interchangeable, Korean students are apt to regard them as having the same meaning. Additionally, they excessively use the representative form “will/shall” plus infinitive among the forms.

Therefore, the teacher should make conscious effort to lead the students into the proper use of the expressions of future time and make them speak and produce the correct sentences which fit the situation well, not depending solely on the form “will/shall” plus infinitive in expressing the future time.

